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루카 1,43)

구요비(욥) 신부

지난 4 월에 나는 불란서 리옹(Lyon)에서 프라도 모임을 마치고 바로 독일에 계신 누님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에게는 제랄드(Gerald)라는 독일 조카가 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독일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철저하게 독일인으로 키워서인지 한국 사람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환자들을 대할 때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노인 분들을 끔찍이 위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동정심(compassion)이 두드러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 그래도 외삼촌이 신부라고 몇 년 전에 개신교 아가씨와 결혼하면서 외삼촌 신부가 와서 주례를 안 하면 결혼 못한다고 강하게 우겨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독일의 누님 댁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는 태어난 아기 루이스(Louis)의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외삼촌이 꼭 대부(代父)가 되어야 한다고 나의 일정에 맞추어서 세례식 날짜를 정하였다. 세례식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던 아이가 정작 내가 복음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아주 조용히 경청해 주어서 아기 부모가 신기해하였다. 내 품에 안겨서는 순한 어린 양처럼 평온하게 머무르는데 ‘아! 참으로 사랑스럽구나!’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아이의 세례식에 다녀온 뒤 늘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한 아이의 탄생이 조카 부부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세례를 통하여 이 아기와 부모와 온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또 하나의 나자렛 성가정의 역사가 오늘의 과학 문명 시대를 사는 이 젊은 부부와 아이 안에서 시작됨을 바라보게 된다.

성모 마리아의 공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가 감싸고 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느님의 신성(神性)이 온전히 인간성(人性)을 취하셨다.

이 아기 예수님 안에 자리 잡은 하느님의 인성(人性)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성이 또한 온전히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니 온전히 하느님(神)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니 여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고귀한 품위와 위대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한 인간의 탄생과 인격 성장의 온 과정 안에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과 돌봄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품안에 머무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쩌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격과 존재 형성 안에 어머니 마리아가 지니신 인품(人品), 예컨대 그분의 성격, 개성, 취향들까지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

성모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극진한 모성애로 키우시며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기완성에 도달하시며, 당신의 온 존재가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아드님의 신성(神性)에 일체(一體)가 되어가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루카 1,43)하고 경탄하게 된다.

수많은 만남과 인연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이니 그 모두 소중하고 그 모두 축복이려니 싶다. 때로 피치 못할 악연으로 만나 힘들게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축복으로 이어진다. 생면부지라도 이런 저런 사연으로 만나 혹자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평생고락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기도 한다. 마음 열고 다가가면 크게 악한 사람 누가 있을까 싶다.

그러나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만남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친구 되어주는 사람 만나기 정말 흔치 않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이 커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해지거나 이해타산에 밝아 득실을 따지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이 어렵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관계파괴의 구체적인 양상은 욕심, 거짓, 무관심, 무책임, 무시함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책임 모두 그저 사회적 현상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마땅치 않다. 나와 너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 카네기 멜론대 교수 i랜디 포시i는 폐암으로 여섯 달 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집필한 "마지막 강의"에서 i진실이 최고의 설득력이다i 라고 설파한다.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운 사회에서 그보다 더 강한 처방은 없을 듯하다. 역설 같지만 자신을 버리면 더욱 강해지는 법인데 그러지 못한다. 그저 긍정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지만 내가 주장하고 지적하고 상대가 내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변화되기를 강요한다. 내 견해만 있지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니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설 여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게 된다.

5월 성모성월을 보내는 마음은 이런 아쉬움을 더욱 키워주어 쓸쓸함을 더한다. 이젠 세상 어느 구석에서도 i제가 잘못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i 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서로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자신들의 입지 굳히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귀한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일치와 평화의 모티브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견해가 다르면 서로 편을 가르고 지향점이 다르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오직 내 주장만 가치가 있어 도저히 상대방을 긍정하고 지지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부활7주간 복음에서 i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1), 그들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 17:21)i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가슴을 때린다. 세월은 어김없이 계절을 변화시켜 복된 오월, 성모성월 - 담장마다 넝쿨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천지 초목은 싱그러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는 진실은 어디 있는 것일까?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설득과 수용은 어디 있는 것일까? 예쁜 장미화관 쓰신 채 온화하기도 슬퍼 보이기도 한 성모님 얼굴 보며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죄인 된 마음 때문에 눈 마주치기가 두렵다.

i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서로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성 모 님

강은주 루시아

성 모 님

은총이 가득한 5 월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께 합니다.

한 송이 들장미가 빨갭게 무르익는 5 월

길가에 뻗죽 뻗죽 정열의 여름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 참제자 마을은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

숲속을 온돌방 처럼 오순도순 앉아

피곤한 일상의 짐을 벗고

마음속에 깊은 영상의 시를

성모님께 올립시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

아낌없는 나눔의 마음

욕심 때문에 잃었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참제자 마을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빛의 성모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제자 마을은

사랑을 주는마음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성모성월의 유래>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 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이다. 성모성월이 구체화된 것은 17세기말,1677년 피렌체부근의 도미니코회 수련원에서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화환을 봉헌하는 등 성모신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형식의 성모신심행사는 그 뒤 전 유럽 교회로 퍼져나갔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정착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교황 비오9세가 1854년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 성모신심은 절정에 달했으며, 성모성월 행사는 공식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성모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다.

<로사리오기도 1,000 단>

양 명신 토마스 A

J 회장님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술 한잔 하신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 목주기도 500 단을 오늘까지 하였고, 이어 추가 500 단 하여 총 1,000 단을 할 예정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개무량하고 할 말을 잃었다.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고귀하고 사랑으로 가득찬 기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다. ;나는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있을 수 없었다. 그저 받기만 하여야 하는 나의 마음이 조금은 안타까운 기분이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인해 3 여년의 암투병이, 현재도 항암을 하고 있지만 기적의 연속으로 진행되는 힘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참제자 마을에 속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성모님의 전구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과 성모님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J 회장님으로부터 또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이제 1,000 단을 다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온전히 남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 것 같다.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그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려는 준비부터 하여야 할 테니까. 시간으로 따져 볼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여주신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9. 6. 13.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28	688,292,000	897	499,487,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6월13일 현재 총 3억6,000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4,000만 원 입니다. 2009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중기도 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프라도사제회 부총장이신 조세 아리스토 비에이라 신부님께서 5월17일 방한하셔서 한국의 프라도 사제회를 둘러보시고 5월30일 귀국하셨습니다. 5월23일은 성북동을 방문하시어 신앙인학교 및 성체 조배,나눔,미사를 하신 후 참제자 회원들과의 간담회 및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 5월9일 신앙인학교 개설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성북동 프라도사제회 사무실에서 ;가톨릭교회교리서;교재를 사용하여 신앙재교육차원으로 구요비 신부님, 박광용, 홍승수, 최창주 형제님들이 봉사하여주십니다. 교리 교육 후 성체조배, 나눔 및 특전미사는 계속 이어서 진행됩니다.

* 5월9일 모곡/두미리 임야 노력봉사에 12분이 참석하여 고구마를 1,800주를 심었습니다. 또한 5월30일에는 12 명이 참석하여 3,000주의 옥수수심기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참석하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4월 6일(월) 대한 지적공사에서 모곡리 임야 산221-222번지에 대한 경계측량(185만원)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5월13일부터는 등고선 측량(650만원)이 진행되어 6월9일 완료되어 설계에 적용예정입니다.

* 4월9-10-11일 성주간 빠스카 성3일에 만찬미사와 성체조배, 부활전야미사가 성북동 프라도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 4월 25일(토) 국 옥회 마리아/김 중수요셉 부부의 장남 상우군이 괄 프란체스카양과 하느님의 은총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 5월31(일) 홍 순일 아오스딩/신 만이 떼끌라 부부의 장남 익표군이 심 효은양과 주님의 은총 속에서 결혼 하였습니다.

* 4월19일 최 창주 분도/박 상속 테레사 자녀인 민영리나양이 5월9일 18시 신라호텔결혼식을 앞두고, 18시미사를 압구정1동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처남인 박상수 바오로신부님 집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3월4일 이 두희 미카엘/이 동무 헬레나 부부의 자녀인 이 레지나자매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 8월15(토)-16(일) 1박2일 일정으로 포항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캠프에 참여 예정입니다. 회비 ; 5만원 신청 ;8월8일까지 남요한 (010-3746-8004)

* 방 선녀 카타리나님이 기증하여주신 구로동빌라를 1억 4천만원에 매매함에 따라 양도세 법인세 3,003만원이 교구에 부과되어 참제자에서 지불하였습니다.

* 방 카타리나님의 제2주기 미사가 6월28(일)오후2시 구로역에서 출발하여 15시 미사가 종로성당 광탄묘원에서 있습니다.